

부산지역 설비건설산업 활성화와 회원사 수주 환경 개선에 역점



▲ 부산지역 설비건설산업 활성화와 회원사 수주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산광역시회 사무처 직원들(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기운 사무처장, 이상민 직원, 장화진 직원, 이동규 대리)

1. 회원사 현황

1) 연도별 등록업체 현황

(2008. 5. 13 현재)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업체수	354	340	324	328

2) 구·군청별 등록업체 현황

(2008. 5. 13 현재)

구·군청	등록 수		업체수	구·군청	등록 수		업체수
	기계설비	가스1종			기계설비	가스1종	
강서구	14	5	19	사상구	35	6	40
금정구	24	9	31	사하구	23	6	28
기장군	14	2	15	서 구	4	2	5
남구	17	10	26	수영구	15	9	23
동구	7	4	10	연제구	30	5	33
동래구	30	7	37	영도구	0	0	0
부산진구	38	4	39	중 구	1	0	1
북구	7	4	10	합 계	267	76	328
해운대구	8	3	11				

2. 부산광역시회에서 하는 일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 ① 부산광역시회 건의에 의거 2006년 4월 12일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매진
-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및 관련 기관별로 장·단기적 세부추진목표를 정해 지역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또한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추진상황 종합보고회”를 개최, 그동안 추진한 사업별 하도급율 등 현황과약, 과제별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실행
- ③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참여기관
 △대한설비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건설본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도시공사 △부산광역시교통공사 △일반 대형 건설업체 △부산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대한건설협회 부산광

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등

- ④ 현재 총 26개 과제 중 11개 과제 완료, 14개 과제를 계속 추진 중이고 1개 과제는 장기 과제로 추진,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안건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고 있음
- ⑤ 지역건설업체에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하고 건설공사 관련자료 제공 및 일반 대형 건설업체에 우수회원사를 추천 하는 등 지역공사에 부산광역시 회원사 참여 적극 유도

2)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 ① 우수한 설비건설 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지역 대학 건축설비관련학과 재학생들에게 매년 상·하반기 장학금 지급
- ② 대상학교
 △ 동명대학 건축설비과(1997년~2003년)
 △ 동의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2006년~현재)
- ③ 장학사업 배출현황

△ 인원 : 총 74명
 △ 금액 : 총 35,860,000원

3) 중국 상해시 안장협회와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

- ① 중국 상해시 안장협회 대표단 한국 방문
 - △ 방문기간 : 2001. 10. 8 ~ 10. 14 (6박7일)
 - △ 방문인원 : 심백청 회장 외 7명
 - △ 주요내용
 - 2001부산국제건축문화제 참관 및 관람
 - 자매결연 협정 및 협력증진 간담회 개최
 - 대형 설비건설 현장 방문
- ② 부산광역시회 대표단 중국 방문
 - △ 방문기간 : 2004. 6. 23 ~ 6. 27 (4박5일)
 - △ 방문인원 : 김광환 단장 외 15명
 - △ 주요내용
 - 협력증진 간담회(합의비망록 작성)
 - 상해 대형 설비건설 현장 방문
 - 상해 첨단 연구시설 견학
- ③ 중국 상해시 안장협회 대표단 한국 방문
 - △ 방문기간 : 2005. 9. 20 ~ 9. 23 (3박4일)
 - △ 방문인원 : 담득근 단장 외 14명
 - △ 주요내용
 - 한·중 설비기술 연구 토론회 개최
 - 해운대 포스코 센텀파크 건설현장 방문
- ④ 부산광역시회 대표단 중국 방문
 - △ 방문기간 : 2007. 4. 19 ~ 4. 23 (4박5일)
 - △ 방문인원 : 김광환 회장 외 27명
 - △ 주요내용
 - 상호 협력증진 간담회
 - 푸둥공항 건설현장 방문
- ⑤ 부산광역시회와 중국 상해시 안장협회는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초청 및 방문을

통해 한·중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간담회, 설비기술 관련 연구 토론회 개최, 건설현장 견학 등 상호간 건설시장과 해외진출 및 설비기술에 대해 협력하고 있음

4) 정부위탁 업무 수행

- ① 국토해양부로부터 설비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실적, 적격심사 자료의 확정,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등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② 매년 부산지역 270여개 업체 4천억원 규모의 기성실적, 약 1,000여명의 기술인력 및 정기결산서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업무를 수행함
- ③ 인정기능사경력증 발급업무를 통해 지속적인 기능인력 양성으로 총 462명의 최종합격자 배출

5) 설비기술세미나 개최

- ① 회원사 기술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설비기술세미나 개최
- ② 대한설비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대한설비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공동으로 각 분야 전문가 초빙, 설비건설업계 기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강연

6)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 ① 부산광역시회는 불우한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성금을 모금해 불우시설 등에 매년 기탁
- ② 모금기간 : 매년 12월 초 · 중순
- ③ 기탁처 : 화명동 평화의 집, 천성재활원, 소화영아재활원, 표행자 할머니, 이건호 학생, 엄주일 할아버지 등

7) 회원사 지원사업 추진

- ① 회원사 경영지원과 회원사 임·직원의 업무향상을 위한 각종 강습회 수시 개최
- ② 건설계약관련, 건설공사 노무실무,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 실적신고 등의 교육을 전 회원사 대상으로 실시

3. 부산광역시회 회원사의 공사 수주환경

1) 건설공사 기성실적 현황

2006년 전국 기성실적은 전년도 9조 4,065억원에서 10조 126억원으로 6.4% 증가, 2007년 기성실적은 약 10조 8,041억원으로 전년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부산지역 업체의 2006년 기성실적은 전년도 4,292억원에서 4,009억원으로 6.6%감소하였으며, 2007년 기성실적은 약 4,040억원으로 전년보다 0.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전국 평균 6~7%의 성장에 비교할 때 부산지역은 국제유가 상승 및 원자재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성장 정체를 넘어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에 처함

2) 최근 설비건설업 수주환경

건설시장개방에 의한 무한경쟁의 시기에 무리한 최저가 낙찰 및 덤핑수주로 인하여 설비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건설공사 인건비와 원자재가격 상승 및 4대 사회보험료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회원사의 수익구조 불안

또한 부산지역에는 지방건설 경기 침체와 더불어 타지역 업체가 많이 진출해 지역업체는 일감 부족에 처해있는 실정임

3) 건설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어려운 수주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회원사의 공사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요 발주기관에 기계설비 분리발주 시행을 적극 건의

지역 회원사의 시공품질 향상과 신기술 도입 등 기술력 향상을 지원, 회원사 권익보호와 경영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수주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4. 부산광역시의 주요 발주기관 현황 및 분리발주를 위한 노력

1) 주요 발주기관 현황

부산광역시 구·군청,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구·군 교육청,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항만공사,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등

2) 분리발주를 위한 노력

- ① 원도급공사 수주로 인한 공사 채산성을 확보하고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최우선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BTL사업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인해 분리발주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
- ② 분리발주된 공사의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요 현장에 대하여 시공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발주처에 분리발주의 근거 및 장점을 홍보, 적극 시행 건의
- ③ 2004년 3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주관과 우리협회 부산시회 및 건설협회 부산시회의 참여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공사범위 조정 협의」를 거쳐 공사에정금액

5,000만원이상 신축·개축공사는 분리발주를 지속키로 하고 공사에정금액 5,000만원미만 증축공사는 통합발주하기로 함

- ④ 부산광역시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이고 병원, 호텔 등 민간부분까지도 분리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원사와 긴밀히 협조해 분리발주된 현장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 분리발주된 설비공사가 하도급에 의한 공사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분리발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2) 분리발주 활동 성과

- ① 부산광역시회 회장단에서는 연중 주요 발주관서를 방문 하여 업계 애로사항 건의 및 분리발주 확대를 계속 건의 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등 지역 발주기관으로부터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약 879억원(499건)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추진
- ② 현재 부산광역시건설본부 및 교육청 등에서는 전부 분리발주하고 있으며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등에서 시범발주 및 확대 시행을 검토 중이며 그 외 발주 기관도 조만간 시행할 계획

3) 최근 분리발주 주요 현황

발주처	공사명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2,006,988,00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4,351,000,00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Busan Global Village 건립 기계설비공사	3,353,329,00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건립 기계설비공사	5,346,100,00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기계설비공사	2,075,447,000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청	북부교육청 청사 신축 기계설비공사(장기계속공사)	1,215,780,000
부산광역시 교육청	동래여자고등학교 옥외 급수배관	325,565,000
교체 및 기타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 지원시설 건립 기계설비공사	1,566,448,670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신항남컨테이너터미널 (2·2단계) 건축기계설비공사	3,833,500,000



건강
상식

동물들도 의치가 필요할까?

동물들은 의치가 필요 없다. 상어는 여러 줄로 나열된 무려 80개나 되는 이빨을 갖고 있어서 한꺼번에 10여 개쯤 부러져도 아무런 걱정 없다. 계속 빠지고 새로 자라고 하는 과정을 평생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10년 정도 살면 무려 24,000개의 이빨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악어도 약 60여 개의 이빨

이 있다. 또 달팽이는, 입은 바늘구멍보다 더 작는데 이빨은 무려 25,600개나 된다고 한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

미니인터뷰 - 김광환 부산광역시회 회장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시 조례 제정으로 회원사 경영활동 적극 지원

현재 건설산업은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시기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회원사 경영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부산광역시회는 이러한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전 회원사와 사무처 직원이 하나가 되어 본회의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로 설비건설업계의 진흥창달에 앞장설 것입니다.

■ 회원사 수주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부산광역시회에서는 회원사의 수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 김광환 부산광역시회 회장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회는 기계설비의 특수성과 분리발주의 장점 등을 부산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2006년 부산광역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방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반건설업체와 기계설비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역 업체의 기성실적은 2006년 전국 10조 126억원 중 4,009억원으로 4%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 기성실적은 약 3.74%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외지 업체의 부산 진출로 지역 업체의 일감 부족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요 발주기관의 기계

“기계설비의 특수성과 분리발주의 장점 등을 부산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2006년 부산광역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방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반건설업체와
기계설비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사례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설비 분리발주와 부산광역시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최우선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 설비건설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현재 건설현장의 기능인력은 대부분 50대~60대로 부산 지역 교육훈련기관에서 건설전문 인력의 배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 기능인력의 유입이 없어 현장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학이나 공업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에서 건축설비관련 학과가 많았으나 현재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IT관련 학과로 개편되는 등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수급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비기술세미나를 개최, 기존 임·직원에게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정기능사경력증 발급을 독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설비관련학과 재학생에게 장학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업계 기술인력과 학생에게 설비건설인의 자긍심 고취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 덤핑수주 지양 및 업계 위상 높이는데 적극 앞장설 것

어려운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심화되고 있는 덤핑수주를 없애고 품질시공으로 공사비 제값받기를 정착하여 업계의 신뢰도와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설비건설인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지역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